56. 표 끊었어? 여행책 ‘동행’ 구해야지?

새로운 여행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 6월인데 벌써 여행인가 싶다. 그러나 출판계에선 요맘때가 여행책 출간의 적기라고 한다. 부지런한 이들은 7~8월 여름휴가 여행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 세상사에 바빠 미처 생각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다. 여행이라는 게 준비 과정도 즐겁지 아니한가. 최근 나온 여행책 가운데 독자의 눈길을 끌 만한 책이 있다.   
  
먼저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문학동네, 이영미 옮김)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최신 여행 에세이다. 그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기고한 수필 10편이 실려 있다.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장편소설 <노르웨이의 숲>을 쓴 그리스의 섬, 와인의 성지 토스카나, 광활한 자연의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등이 무라카미의 붓끝에서 되살아난다. 이들 여행지의 특성과 문화를 꼼꼼히 기록해, 여행 가이드 구실도 겸한다. 미국 포틀랜드에선 좋은 레스토랑도 추천하고, 뉴욕에선 재즈클럽을 짚어주는 식이다. 그의 아내가 직접 찍은 것을 포함해 사진 25장도 곁들여져 있다. 다만, 에세이의 전반적 색조는 ‘쫄깃함’보다는 ‘여유’ 쪽인데, 어떤 독자한테는 너무 한가해 보일지 모른다. 무라카미는 몇년 동안 미국 보스턴에 살면서 마라톤 대회도 몇 번 나가봤다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는가.   
  
<허영만 이토록 맛있는 일본이라면>(가디언)은 만화가 허영만과 스토리 작가 이호준이 지난 2년 동안 일본 소도시 10곳을 누비면서 확인한 정보를 글과 만화, 사진으로 풀어낸 책이다.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등 한국인한테 익숙한 여행지 대신 지방 소도시 중심이다. 50번에 이르는 일본 식도락 여행의 내공이 배어 있다.   
  
이를테면 지은이들은 돼지고기 요리의 천국인 오키나와에선 600년 전통 술 아와모리를 마셔보고, 이세신궁이 있는 미에에선 이세우동과 장어덮밥, 최고의 육질을 자랑한다는 마쓰사카 소고기 요리를 맛본다. 소설 <설국>의 배경인 니가타에선 노천탕에 앉아 설경을 바라보며 사케 한잔을 기울인다. 장마다 이야깃거리, 먹을거리, 볼거리와 숙소 등 세 꼭지로 구성돼 있다.   
  
여행이라고 꼭 외국에 나가야만 하는 건 아니다. <에어비앤비 서울 아트숙소 11>(임지선 지음, 미래의창)의 여행지는 서울과 경기 일대다. 서울 사람이라면 별게 아닐 것 같지만, 특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묵는 것도 특별한 여행이 된다. 작가나 건축가 등 예술적 감수성을 가진 집주인이 빌려주는 ‘아트숙소’ 11곳을 다채로운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집의 구석구석을 수놓고 있는 인테리어 소품에 눈길이 가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집도 좋지만 집주인은 더 좋다고 한다.   
  
멀리 제주 쪽은 어떤가. <제주의 파랑새>(김정숙 지음, 각)는 한라산과 숲길, 올레 등 제주에 서린 여러 이야기를 풀어주는 ‘제주기행 도우미’이다. 서사무가 형식으로 전해지는 신들의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제주의 풍광뿐 아니라 역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터다.   
  
외국여행 분야에선 동유럽을 다룬 책이 많다. 티브이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소개되면서 일종의 유행이 된 듯하다. <디어 슬로베니아>(김이듬 지음, 로고폴리스)는 지은이가 현지에 92일 머무르면서 보고 겪고 느낀 유럽 발칸반도의 슬로베니아 이야기가 담겨 있다. 동유럽 패키지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슬로베니아의 여러 명소들이 소개된다. 론리플래닛 트래블가이드 시리즈의<동유럽>(론리플래닛 편집부 지음, 안그라픽스)도 이달 들어 나왔다. 체코 프라하,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불가리아의 흑해 연안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동유럽이 한 권에 압축돼 있다.   
  
이밖에 한 달에 한 도시씩 살아보면서 천천히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있는 부부의 여행기 아시아 편인 <한 달에 한 도시 3>(김은덕·백종민 지음, 이야기나무)과, 엄마와 세계여행을 다니고 있는 태원준씨의 <엄마, 내친김에 남미까지!>(북로그컴퍼니)도 서점의 전시대에 새로 자리를 잡았다.